

지역 소식통

부안보건소, 손씻기 실천
감염병 예방 당부

부안군보건소는 정부의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손씻기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확하고 올바른 6단계 손씻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안군민과 부안군 소속 직직원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어릴적부터 정확하고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부안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손씻기 부활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의 50~70%, 폐렴, 농가진, 설사병의 40~50% 이상이 적절한 손씻기 실천만으로도 예방가능하고,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렇듯 손씻기의 감염병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생명연 전북분원
바이오메이트 발대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하 생명연) 전북분원과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은 19일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과학문화 확산 위한 제 1기 생명연(연) 전북분원 Bio-Mate(바이오메이트)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서는 생명연(연) 전북분원 Bio-Mate 1기 10명이 위촉돼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지역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명연(연)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한다. Bio-Mate들은 각급 초·중·고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직접 학교로 찾아가 바이오 과학특강과 생활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유행균 2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생생한 연구·실험의 모습을 직접 보여줘 바이오 과학자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명연(연) 연구센터 시설 견학도 계획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복분자 · 수박축제 성료

16만2000여명 방문... 드라이브루로 진행된 농산물 현장판매 전량 조기 매진

전북 고창군은 '제20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6월16일~6월18일)'가 16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에서 복분자와 수박을 테마로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했으며, 찬포배기 이찬원과 민간 녹음축음기 조맹삼이 출연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DJ와 함께하는 더워(The War) 물총 싸움'으로 축제장 일원에서 어린이에게서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서로에게 물총을 쏘아대며 때 이른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 버렸다.

이외에도 고창출신 트롯가수와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청춘버스킹, 플로깅 행사, SNS이벤트 행사, 키즈존 등 다



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고창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해풍을 맞고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우수한 고창의 맛좋은 복분자와 수박을 구매할 수 있었다. 올해는 관광객이 복분자와 수박을 구입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드라이브루 방식으로 마련되어 전량 조기 매진

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성공적인 축제를 통해 군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계획된 '고창갯벌축제'를 비롯해, 물축제, 갯벌축제, 모양성제 등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19일 오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국홍보 일리미로 유명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특집 고창포럼을 열었다.

“우리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서경덕 교수 초청 호국보훈의 달 특집 고창포럼 개최

고창군이 19일 오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국홍보 일리미로 유명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특집 고창포럼을 열었다.

관내 청소년과 보훈가족, 일반 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경덕 교수는 '한국문화와 역사홍보,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주변국들의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고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경험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충시설을 누리꾼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널리 알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호국역사를 널리 알리는 활동에 대한 강연으로 이어졌다.

서경덕 교수는 "이른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각광 받는

시대에 우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그 문화의 힘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역사이며 그 역사의 기본적인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경덕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와 고창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서경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서경덕 교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뉴욕타임스에 '독도' 광고를 게재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세계적인 언론에 통해, 일본 강제징용, 위안부 등 관련 광고를 싣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의단계서 예산 삭감되는 일 없어야 할 것”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전북도·중앙부처 협조체계 구축 당부

이학수 정읍시장이 19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확보한 국가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는 예산확보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



한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우리 지역의 시정소식이

나 공연, 행사 등이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에게 공지가 잘 안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휴가철을 앞두고 시가지 잡초제거 등 철저한 환경정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년연령 45세로 상향... 청년인구 7300여명 증가

정읍시가 초고령화사회이자 인구감소지역의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현실을 반영, 청년연령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정읍시는 지난 14일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연령을 기존 18세~30세에서 18세~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읍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만 9200여 명(인구비율 18%)에서 2만 6500여 명(인구비율 25%)으로, 약 7300여명의 새로운 청년이 늘어났다.

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총47개의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25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기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년창업가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모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구직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사업'과 청년층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 있다.

청년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40세 이

상 45세 이하의 시민들도 이러한 청년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폭이 넓어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이 갖춰진 청년 인구를 상승시켜 전체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 연령을 상향 개정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청년들의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해 지역을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귀농귀촌 유치 도시민 체험학교 운영

고창군이 복분자와 수박축제 in 고창'을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7명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귀농 체험학교 2회차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귀농 체험학교에서는 2박3일 동안 고창군 명소 탐방 귀농 우수사례 농가 견학, 귀농귀촌 준비 특강과 복분자와 수박축제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첫날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의 고창군 농업 현황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고창의 역사가 담긴 고창읍성과 노동자수지 수상길 탐방, 상하면에 정착한 산배귀농인 농가 견학, 상하농원 투어, 체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견학 및 정책설명과 행복한 시골살이 준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날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즐기고 체험한 후 치유농장인 보너스타 허브농원 탐방을 끝으로 2박 3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은퇴 후 상하면에 정착해 블루베리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중길, 신동복 농가 견학에서는 고창의 산과 바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좋은 황토땅에 대한 자랑과 은퇴 전 미리 귀농귀촌을 준비할 것, 그리고 마을주민과 어떻게 융화되어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중한 경험담을 듣고 공감하며 귀농귀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